

‘차이’ 이해하면 ‘마음벽’ 허물어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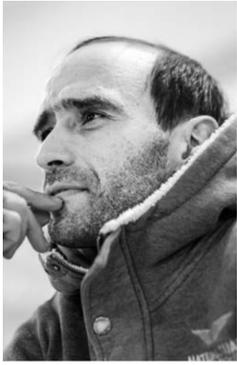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 ‘사람 책’ 발간

고려인 학교 교사·비전행집 대표 등 비주류 활동가 9명 이야기 담

“우리는 누구나 한번쯤 이방인,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살아왔거나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간다. 나와 다른 형태로 ‘비주류’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가 사는 광주’의 오늘을 돌아본다.”

비대면, 언택트, 팬데믹이라는 말이 친숙하다 못해 일상화가 된 지금. 이러한 말과 공통으로 연관된 의미 있는 단어를 고르려면 아마 ‘사람’이 아닐까 싶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저마다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다.

지역의 소수 문화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안드레이 교사



서수민 대표



김지현 기획자

“커피 한 잔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마시는 문화도 있어요. 또 사람 관계에서 혹 들어오는 문화가 있어요.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 그런 문화가 있죠. 별로 친하지 않거나 처음 만난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놀라웠는데 오래 살다보니 동화되더라고요.”

광주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장인 안드레이 광주새날학교 교사는 “고려인 아이들에게 형, 아빠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결혼 후 11년째 거주하고 있다.

안드레이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어머니는 프랑스, 자신은 체코 출신이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싶어 고민하던 중, 아는 사람의 권유로 한국행을 택했다. 돈과 무관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계기가 됐다.

그는 “방치된 고려인 아이들 얘기가 너무 마음 아팠다”며 “나라도 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날학교 교사로 일하게 됐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고려인 가족을 상대로 러사바로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이밖에 강의 영상을 300개 만들어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무료로 운영하기도 한다.

생태행집을 추구하는 ‘빵과 장미’ 서수민 대표는 다른 무엇보다 비건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비건’은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동물 착취에

반대하며 함께 존재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빵집 이름은 켄 로치 감독 영화 ‘빵과 장미’ (2002)에서 따왔다.

서 대표는 고향은 대구이지만,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녔다. 빵집을 운영하면서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느꼈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비건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지현 공공활동 기획자는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한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녀는 ‘어떤 것을 기억하라’ 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오월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싶었다. 올해까지 4년째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불이 지 못한 안부들’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했다. 최근에는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의 제로 웨이스트 숍을 다니며 광주에서도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만날 수 있는 상점을 기획했다. ‘송정마을카페 이공’이라는 협동조합 내 카페 공간에 팝업스토어로 들어와 있다.

이밖에 광주 최초 여자 사회인야구단 ‘광주스윙 이글스’ 이수진 선수, 육아커뮤니티 협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엄마 송지원 씨 등 비주류 문화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사람 책’은 광주 관내 독립서점 18곳에서 선착순 무료 배포된다. 문의 062-670-74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으로 연말 잘 마무리하세요

노부스 콰르텟, 24일 광주문예회관 용재 오일, 29일 문예회관서 공연



리처드 용재 오일.

현악 4중주단 노부스 콰르텟과 바이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일의 공연이 잇따라 열린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기획공연 포커스 마지막 시리즈로 노부스 콰르텟을 초청해 공연을 펼친다.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노부스 콰르텟은 이날 베토벤을 대표하는 현악 4중주 곡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제6번·제11번·제14번’을 들려준다.

첫 곡 제6번은 베토벤의 초기 작품 중 하나로 인간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자 했던 베토벤의 개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총 5악장으로 곡의 후반은 진행이 점차 화려해지며 밝은 색채로 마무리된다.

한편, 지난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솔리스트들이 모여 결성한 노부스 콰르텟은 바이올린 김재영·김영옥, 비올라 김규현, 첼로 이원해로 구성된 팀이다.

아르디티 콰르텟, 벨체아 콰르텟, 아르테미스 콰르텟 등이 소속돼 있는 독일 현악사중주 에이전시 ‘지멘아우어’에 소속된 유일한 동양인 아티스트로 한국인 최초로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리처드 용재 오일의 ‘선물 2020 - CINEMA’는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팬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조운성 트리오,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용재 오일이 가장 아끼는 음악을 들려준다.

1부에서는 비발디와 바흐의 바로크 음악을 들려준다. 텔레만의 ‘비올라 협주곡’,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2부 공연은 용재 오일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들을 테마로 진행된다. 영화 ‘핑크팬더’, ‘찰리 브라운’, ‘카우보이 비밥’, ‘라라랜드’, ‘맘미미아’ 등 고전영화부터 현대영화 음악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현악 4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간결한 시어로 형상화

진도 출신 박현우 시인 ‘달이...’

진도 출신 박현우 시인이 시집 ‘달이 따라오더니 내 등을 두드리곤 했다’ (문학들)를 펴냈다. 작품집에서는 고향 진도의 그림자가 어른겨린다. 고향 밖에서 마주치는 것은 낯설고 아픈 세계다.

시인은 고향을 떠나 광주에서 대학을 나왔고 5월 항쟁을 겪었다. 이후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심을 키웠다. 고향과 이후의 여정의 간



극 속에 그의 시가 자리한다. “선술집 창가에서/ 멀리 바라본 하늘가/ 둥근 달이 따라오더니/ 내 등을 두드리곤 했다”

‘달이 따라오더니 내 등을 두드리곤 했다’는 간결하고 평이한 시어로 그린 작품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진

다. 그러나 감지를 안주 삼은 술자리를 비유한 시 ‘칼치에 대하여’에서 “술머시 간을 보는 것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한다. “그런다고 바다를 안다고는 말하지 마라”고, 나아가 “온갖 양념 바꾸려진 토막 난 의식보다/ 등가시를 바르고도 남은 살점을 지탱한/ 큰 가시의 중심에 머무는 것을 말하자”고 이야기한다.

김준태 시인은 “박현우 선생의 시는 그가 살아온 세월을 잘 빚질한 듯이 어디 한군데 형용어집이 없다.” 그의 고향 바다에 철썩철썩 밀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하늘의 달빛도 받아 아늑함을 준다”고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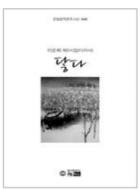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목포 출신 이순희 시인 시집 ‘달다’ 출간

목포·신안 예총 수석 부회장이자 이순희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달다’ (한림)를 펴냈다. 이번 시집은 순간을 포착한 영상과 느낌을 문자화한 디카시 73편이 담겨 있다. 맑고 순수한 서정을 노래한 시집은 시가 외면 받는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독자하게 좀더 편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을 담았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산, 풀꽃, 햇살 바다... 내 사랑의 꿈 번져서 삶이 되었다. 삶은 한줄기 바람처럼 분홍빛 찰나다. 오늘도 이 산, 저 산 오르내리며 시어(詩語)에 달고 싶어 갇는다”

‘달다’가 담고 있는 시들은 산과 바다와 풀꽃 등 자연은 물론 꿈, 사랑 등 심상적 배경도 아우른다. 다시 말해 추상이 구상으로 전이되는 절묘한 시점을 간결한 언어로 풀어낸다.



신병은 시인은 “자연과 진정으로 공감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시인의 소박한 바람이 안겨 늘 자연 가까이서 자연을 들여다보고 자연과 소통하여 맑고 설렘의 공간을 만나게 하는 디카시는 말 많은 시대에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통섭에 대한 눈 맑은 발성이다”고 평한다.

한편 목포 출신 이순희 시인은 1996년 ‘문학춘추’로 등단했으며 전남문인협회부회장, 목포문인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남문학상, 전남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동행’, ‘저 환한 산빛 타이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평강안마지압원</h3> <p>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 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 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 ☎ 062)527-6664, 010-2645-6664</p>	<h3>In.ssalon_sia</h3> <p>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 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 062)233-1202</p>	<h3>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h3> <p>동구 신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법무사 이영석사무소</h3> <p>동구법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h3>보 광 세 탁 소</h3> <p>동구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h3>국수나무 광주신안점</h3> <p>북구서안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p>	<h3>드림케어슬루션</h3> <p>동구 금남로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 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살)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p>	<h3>석 당 화 랑</h3> <p>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동 양 철 학 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필 스 제 화</h3> <p>동구 신수동 553-73(신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법무사 김운희사무소</h3> <p>목포시정의로26-4번초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연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p>	<h3>제니골드(귀금속카페)</h3> <p>동구 총장4가 3-3 (광주 총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리페,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p>	<h3>초 대 화 랑</h3>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고 전 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신 신 예 술 의 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웅추해신삼계탕</h3> <p>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h3>100세의료기 나주점</h3> <p>전남 나주시 나주로 211(성북동)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기, 환자간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처방용 건강체크기, 가정소발생기대어 재활용품 각종 물리치료기, 찜질기 전동스쿠터 판매및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p>	<h3>박 당 화 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